

10. 자족함과 비교 Contentment and Comparison



이런 일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싱글 선교사 빌(Bill)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톰(Tom)과 루쓰(Ruth)가 큰 저택 앞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을 흔들어 인사를 했다. 아파트에 들어서면서, 빌은 자기 아파트가 너무나 작다고 느꼈다. 혼자 살기에는 적당했지만, 부엌은 간신히 몸을 돌리기도 힘들 정도였다. 집이 좀 더 넓으면 좋을텐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빌이 지나간 후에 또 다른 싱글 선교사 메리(Mary)도 동네에 들어와서, 톰과 루쓰에게 손을 흔들었다. 아파트에 들어가면서 메리는 집에 아무도 없어서 얼마나 외로운지를 새삼 깨달았다. 메리는 자기를 도와주고, 톰과 루쓰처럼 함께 웃어주는 사람이 절실히 필요했다.

빌과 메리는 현재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스스로 불만족을 자각하게 한 것은 톰과 루쓰의 모습이었다. 누구나 불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싱글 선교사들은 결혼한 선교사들과는 다른 불만을 품을 수 있는데, 그것에 대해 대화를 나눌 사람이 없다.

자족함에 대한 성경 말씀

독신 선교사였던 바울은 자신이 돌보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은 상황이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그는 부족은 물론, 풍부에 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으며, 모든 상황에서 자족함을 얻는 비결을 배웠다(빌4:11-12). 바울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배웠다고 하는 점과, 그 능력이 어떤 일이 일어났던지 간에 적용되었음을 주목하라.

바울은 또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선교사에게 편지를 보냈다. 바울은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딤후 6:6)고 썼다. 성경에서 ‘자족함’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유일한 다른 부분은 바울이 그가 개척한 또 다른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이다. 즉, “모든 것이 넉넉하여”라는 표현이다.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고후9:8). 그것이 자족함이다!

자족함의 결과

자족하지 못하는 것들

- 독신의 ‘십자가’를 짐
- 독신을 견딤
- 독심을 인내함
- 독신을 마지못해 받아들임

자족하는 것들

- 하나님을 섬김으로 만족함
- 내면 깊은 곳에서의 기쁨

- 하나님께 감사

성경에 있는 예

-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에도 기뻐함 (합3:17-18)
- 능욕을 받을 때에 기뻐함 (행5:41)
- 매를 맞고 옥에 갇힌 때에도 찬송함 (행16:23-25)
-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함 (히10:34)
-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함 (벧전4:12-13)

비교에 대한 성경 말씀

결혼을 하지 않았던 예수님도 자족함을 파괴하고, 질투를 유발하는 비교 의식에 대해 우화로 말씀하셨다. 주인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전형적인 하루 품삯)을 주기로 품꾼들과 약속했고, 품꾼들이 일하러 간 것으로 보아 이 조건에 만족했던 것이 분명하다. 하루 종일 더 많은 품꾼들이 일하러 왔다. 저녁에 품꾼들이 품삯을 받을 때,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한 데나리온에 하루 종일 일하기로 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삯과 비교했을 때 더 이상 만족스럽지 않았다(마 20:1-16). 그들이 불평하는 것을 보고, 주인은 그들에게 자신이 후한 것을 보고, 부러워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앞날에 대해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다른 제자를 쳐다보고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라고 물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게 무슨 상관이나, 그저 예수님을 따르라고—그의 미래를 다른 사람의 미래와 비교하지 말라고—말씀하셨다(요21:16-22)

비교의 결과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비교에서 오는 공통된 결과가 시기심임을 명확히 말씀하셨다. 시기심은 결코 감사함을 낳지 못한다. 기쁨이 없으며, 탐심이 커짐에 따라 오직 끝없는 자괴감만 생겨날 뿐이다. 시기심은 단지 다른 사람의 물건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 결과는 가인과 아벨의 경우처럼 분노, 배신, 양심, 비방, 증오, 심지어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창4:2-8).

상대적 박탈감의 원칙은 사람들이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부유한 측면을 간과하고, 다른 사람들이 더 부유한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의 은사와 축복을 저평가하고, 반면에 다른 사람들의 은사와 축복을 과대평가한다. 그렇게 되면 불만족만 더 커지게 될 뿐이다!

시기심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조차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본 모습이나 가진 것에 대해 감사하거나 행복해 하지 않는다. 이 죄는 치명적인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으로 살지 못하도록 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특성과 재능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한 은사를 최선과 최대로 보답하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은사를 비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다른 사람은 물론 자신들로부터도 소외되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

더 나아가, 시기심은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인 탐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출20:17).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일반적인 명령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몇 가지를 말씀하셨다.

- 집
- 배우자
- 하인
- 동물

빌이 더 넓은 집을 단순히 원하는 한 탐심을 가진 것이 아니지만, 만약 톰과 루씨가 살고 있는 그 집을 원하게 되는 순간, 그는 열 번째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그 집을 얻기 위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그 도시를 섬기고 있는 전체 팀 안에서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메리가 남편을 원하는 한 탐심을 가진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만약 톰을 자기의 남편으로 원하기 시작한다면, 그녀는 탐심을 갖는 것이고, 그로 인해 끔찍한 결과가 파생될 수 있다. 팀에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결혼이 깨지고, 아이들이 이혼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결혼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다고 해도, 그들 역시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탐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배우자가 없는 미혼남녀는 탐심을 갖기가 더 쉽다. 싱글들이 결혼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는 순간, 그러한 마음이 더 자라나지 않도록 즉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혹이 커지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 되어 비이성적으로 상대방을 위해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게 된다. 그것이 가정을 깨고, 선교사 경력을 좌초시키고, 죄 가운데에 살게 한다고 해도 말이다.

어떻게 해야하나

시기심을 선뜻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시기심은 자기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단지 다른 사람이 가졌다는 이유로 무엇인가를 원하며, 비열하고 상스럽기 그지없다.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차이가 보일 때, 우리는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런 비교는 종종 시기심으로 이어진다. 시기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의 시기심을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함정에 빠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 고백하고 회개하라. 다른 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주신다고 약속하셨다(요일 1장) 만약 우리가 죄를 부인하면,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그 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우리가 용서받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며, 우리가 행한 잘못에 대해 슬퍼할 뿐 아니라, 또한 죄 자체로부터 돌이켜야 한다. 다음은 시기심으로부터 돌이키도록 하고, 시기심으로 인한 덫에 빠지기 보다는 피하게 하는 방법들이다.
- 자신과 자신을 비교하라. 만약 당신이 비교를 해야만 한다면, 자신을 자신과 비교하라.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의 아파트, 봉급, 자동차 등을 당신이 10년 혹은 20년 전에 가졌던 것들과 비교하라. 결혼한 동료 선교사가 지금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하지 말라.
- 더 적게 가진 사람과 비교하라. 가진 것이 더 많고, 이미 결혼한 선교사와 자신을 비교하기 보다는, 당신이 섬기는 덜 가진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라. 당신의 아파트를 집이 없는 노숙자의 주거 환경과 비교하라. 당신의 봉급을 실업자와 당신이 섬기는 나라의 현지인과 비교하라. 당신의 자동차를 아예 차가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라. 자신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시기심을 생성하듯이, 덜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은 자족감을 증대시킨다. ‘받은 복을 세어’ 보면, 당신

은 덜 가진 다른 사람들과 복을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들게 될 것이다. 나눔은 당신의 만족을 더욱 크게 증대시킬 것이다!

- 아무것도 영원한 기쁨과 만족을 가져올 수 없음을 인정하라. 당신이 무엇을 가졌던, 당신은 그것에 곧 적응할 것이고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집, 배우자, 봉급, 자동차, 지위, 언어 능력 등등 무엇이건 간에 그렇다. 20세기 후반에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관계가 행복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사람들에게 예배의 행위로서 자신들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한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자족감을 준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보통 두 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첫째, 장래에 닥쳐올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권리포기이다. 둘째, 그 후에 예기치 않은 특정한 상황이 발생하면, 좋은 새로운 것들을 포함하도록 권리포기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해야 할 수도 있다.

비록 당신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함으로써 기쁨, 만족, 자족감을 찾지 못한다고 해도, 스스로 비교하지 않고, 시기심을 피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대계명을 지키면, 자족함이 당신을 찾아올 수도 있다.



† 이 브로셔는 저자 로날드 코테스키 박사의 원문(Ronald Koteskey: www.missionarycare.com)을 저자의 승인 하에 올네이션스선교센터(www.anmcusa.org)에서 번역한 것으로 한국어 판권은 올네이션스선교센터에 있습니다.